

“바다가 가물어 뭘 해도 실통치 않아”

[제주잠녀] 108. <2부> 발로 딛는 잠녀들의 삶 (79) 제주시 삼양어촌계

등록 : 2008년 03월 03일 (월) 15:47:11
최종수정 : 2008년 03월 03일 (월) 15:47:11

고미 기자 ✉ popmee@jemin.com



▲ 삼양어촌계 동쪽 바다 양식장

따뜻한 햇살이 쏟아지는 봄 바다는 바람 속에 외롭다.

잠녀들이 잠시 한숨을 쉬는 사이 숨어잡이에 나선 강태공들이 한적한 바다를 흔든다. 검은 모래 해수욕장이 펼쳐지고 삼양화력발전소를 향해 제법 그럴싸한 해안도로도 뚫려있지만 바다 사람들의 가슴엔 겨울 삭풍이 가실 때가 없다. 해마다 전복 종패를 뿌리고 해신제를 지내는 등 정성을 다하는 바다지만 돌아오는 빈 메아리가 가슴 아리다.

잠녀가 없어 사라진 ‘2동 바다’

삼양 바다는 크게 1·3동으로 나뉜다. 누가 구분 지어준 것은 아니지만 잠녀들 사이에서는 철저히 지켜지는 경계가 있다.

예전은 분명 2동바다가 있어 세 곳으로 나눠 작업을 했다. 하지만 지금은 1동 잠녀회와 어부회, 3동 잠녀회와 어부회는 있지만 2동 바다는 사라지고 없다.

그렇다고 바다가 어느 순간 사라진 것은 아니다. 2동 마지막 잠녀가 세상을 떠나면서 2동 바다는 이전부터 함께 작업했던 3동 바다로 흡수됐다.

삼양화력발전소가 생기면서 보상 문제로 적잖이 다툼이 있었고 바다도 달라졌다.

햇물질을 기준으로 1동 잠녀가 11명, 3동 잠녀는 9명이 전부다. 이중 80대가 3명이나 된다. 50대 잠녀 2명을 제외하면 밖에서는 ‘할머니’ 소리를 들을 정도지만 이곳에서 60대는 어린 축에 든다.

1동 50대 잠녀 둘 모두 무도와 구좌 종달리 출신이니 순수하게 삼양출신 잠녀는 바다만큼이나 나이를 먹었다.

바다를 나눠 사용하면서 공동 양식장도 따로 만들었다.

1동은 툇이 전혀 나지 않고 3동은 지난해 잠녀 9명이 900kg을 공동작업한 것이 고작이다. 천초 수확량은 더 부끄럽다.

자체 수익사업이 전혀 없는 데다 해수욕장 역시 마을에서 관리하는 탓에 잠녀들이 설 곳이 없다보니 내부 갈등만 이어졌다.

1·3동으로 엄격한 구분을 두는 통해 한 때 수협에 “어촌계장을 2명 선출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규정상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자구책으로 삼양에서는 4년에 한번 꼴로 1·3동 출신이 번갈아가며 어촌계장 일을 본다.



▲ 삼양 어촌계 옛 불턱자리. 공동어장 옆에 돌담으로 둘러져 있어 짐작할 수 있다.



▲ 돌에 새겨진 삼양 공동어장 표식

가문 가슴에 씹쓸한 바람만

“잠녀는 물질길에 편안하게 하시고 어물을 망살이 가득 채워주시옵고...”

지난 해신제 풀기에도 잠녀들의 일상을 돌봐달라는 부탁이 빠지지 않았다. 그나마 지탱하고 있는 물질에 예전만큼은 못하더라도 물건이라도 많이 잡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하소연이다.

지난해 이곳 잠녀들이 거둬들인 소라는 모두해서 180kg이 전부. 하루 작업을 해 잘해야 5kg, 2kg도 채우지 못한 날이 허다했다.

김성수 어촌계장(55)은 “물건이 적다보니 계통출하에 맞춰 소라를 보관할 여력이 없어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 일일이 수협에 가져갔다”며 “지난해 엔화가 떨어지고 수온까지 오르면서 잡으면 잡을수록 손해가 났을 정도”라고 말했다.

문어나 성게가 잡히는 것으로는 생활비를 보태기도 버거울 정도였다.

효과를 봤다는 말을 듣고 전복 종패를 밤에 뿌리려고 잠녀들을 설득하기도 하고 잠녀탈의장 자리에 잠녀 식당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도 해봤다.

어느 하나 신통한 것이 없다.

바다에 하나 남아있던 여(소여)도 포구를 확장하며 사라졌다. 잠녀가 없어 사라진 2동 바다 매기가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손에 붙씩 잡힐 듯 가까운 바다가 갑자기 멀어진다. 입안 가득 맴도는 짠 소금기에 슽스한 기분 탓만은 아니다.

‘발로 밟는 잠녀들의 삶’ 다음 이야기는 제주시 신촌어촌계이며, 관련 내용은 해녀박물관 홈페이지 (www.haenyeo.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